

그리고 때마다 나타나는 들짐승에게서도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목자는 곧 양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삶을 위해 일하는 목자는, 어려움 앞에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갈 때가 있었습니다. 짐승이 나타나면 싸우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러기에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은 양들에게 있어서 큰 복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목자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십니다.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양들을 지키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양들을 건져내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천국이시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와 부요와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한 눈 팔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들짐승이 울부짖든, 앞길에 구덩이가 있든,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목자가 알아서 챙겨 주십니다. 보호하시고 꼴을 먹이시며 평안 가운데 늠게 하십니다.

2022년도,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아 하셔!!

*한명씩 돌아가며 선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1절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어찌 궁휼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2절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3절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기도문 주기도문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